"소규모 洞 통폐합 공공서비스 공백"

정부기준 '2만명 미만'…광주 73% 해당
"노인·장애인 복지 등 차질" 주민들 반발

정부가 효율성을 내세워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하자 해당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주민 복지 등 공공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구 2만명,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해 인구 2만~2만5천명, 면적 3~5㎢ 규모로 재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광주 5개 구청에 하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오는 20일까지 각 구청별로 통·폐합 추진계획을 확정·보고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산술적으로 현재 광주시 5개 구청 91개 동 가운데 73%를 차지하는 66개 동이 통·폐합 추진 대상이다.

현재 광주시 동구청과 남구청은 통·폐합 대상 동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구, 북구, 광산구 등은 통·폐합 추진 작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이 통·폐합될 경우 현재 91개인 광주시 5개구 전체 동사무소도 절반 가량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복지 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공무원의 인력 축소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노인·장애인 복지 등 현장 복지서비스의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

또 통합 전 거주지 인근에 있던 동사무소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생길 원거리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민이 5천100여명으로 충장동과 동명동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큰 광주시 동구 서남동 주민들은 조영복 동구의회 의장을 만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타 구청이 동 통·폐합에 소극적인데 반해 유독 동구청이 먼저 나서 주민공청회와 여론 수렴절차도 없이 동의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과 10년 전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서남동을 또 다시 다른 동과 통합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린 행정편의주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동이 통·폐합됨으로써 공공서비스 기능의 약화가 예상되고 있는 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효율성만을 따져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초 의회의 의결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규모 동·통폐합이 조기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의 통·폐합은 정부의 권장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주민여론 수렴, 의회의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곧바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총장실 기습 점거(?) 기습 축하

광주대 학생들 10년 전통 스승의 날 행사
대학들 조촐한 행사 열어 스승 은혜 감사

광주대 음악학부 학생 17명은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8시 40분께 총장실을 점거(?)했다.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은 김혁종 총장이 출근하는 순간, 일제히 박수세례와 함께 '스승의 은혜'를 불렀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기습 축하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흐뭇함을 감추지 않았다.

광주대 음악학부 학생들의 '스승의 날' 총장실 점거는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김 총장은 "매년 학생들의 방문을 받아 같은 노래를 듣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다"며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고 말했다.

촌지 수수 등의 구설수 때문에 조용한 '스승의 날'을 보내는 초·중·고교와 달리 이날 광주지역 대학에서는 스승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다.

조선대 사범대는 이날 연주홀에서 08학번 신입생 310명과 각 과 재학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행사를 마련했다. 사범대 교수들을 초청한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 합창에 이어 학과별 장기자랑으로 재롱을 떨었다. 경상대는 2008학번 신입생 전원과 각과 재학생이 교수들을 초청, 교수 소개, 장기자랑, 스승의 은혜 영상물 상영, 감사의 글 낭독, 학장 답글 낭독, 케이크 절단식 등을 진행했다. 체육대는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교수들과 사랑의 포옹을 나눴다.

조선대 생활협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석홀 1층 종합매장과 2층 서점에서 스승의 대한 존경이 가득 담긴 행복장미 200송이를 무료로 나눠줬다.

전남대는 우수교수 6명과 우수학과 6곳을 선정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의 우수교수로 선정된 교수는 이강서(철학과), 조상균(법학과), 김영철(응용화학공학부), 김은희(식품·수산생명의학부), 박인혜(간호학과), 김선헌(치의학과) 교수 등이 뽑혔다. 또 심리학과, 경영학부, 독일언어문학과, 산업공학과,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동물자원학부 등 6개 학과가 우수학과로 선정돼 표창장과 상금 각각 500만원씩을 받았다.

스승의 날인 15일 광주대 음악학부 학생이 김혁종(오른쪽) 총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일꾼 찾기' '미소짱' 선발…
광주도시공사 '펀' 경영

광주도시공사가 신바람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펀(fun)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공사측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기업문화 만들기를 위해 '숨은 일꾼 찾기'와 '미소짱' 선발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들어서는 매주 수요일 업무 시작 전 '모닝 티타임'을 운영해 직원간 벽 허물기에 나서고 있으며, 직원간 칭찬릴레이와 '가족 대화의 날'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이 건축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 성취도에 따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희옥 사장은 "펀 경영 도입 후 직원들의 표정이 아연 밝아졌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치과의사회 백일장 대회 17일 비엔날레 야외공연장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배 웅)와 대한구강보건협회 광주지부(지부장 김동기), 광주시 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이 공동주최하는 백일장 대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광주비엔날레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제63회 구강보건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부문별로 진행되며, 응모분야는 포스터와 그림, 표어, 글짓기 등이 있다.

작품 주제는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병의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그림과 글짓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강 보건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분야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치아의 날'인 6월9일 오전 10시에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다. 또 입상작은 오는 6월9일부터 닷새 동안 금남로 4가 지하철역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안현주기자 ahj@

5·18사적지 안내책자 3천부 제작 배부

광주시는 제2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5·18 민주화운동 리플렛 7천매와 5·18사적지 안내책자 3천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5·18사적지 안내책자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 및 주요 5·18사적지에 대한 사진과 위치도가 수록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리플렛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과 국립5·18민주묘지 현황, 5·18구묘지, 5·18기념문화센터 등 5·18관련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과 위치도를 담고 있다.

특히 리플릿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본을 추가 제작해 방문객이 많이 찾는 국립5·18민주묘지와 5·18기념문화센터, (재)5·18기념재단 등에 비치, 배부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

글로벌 시대 영어교사의 역할은
광주시립도서관 16일 '아메리칸 오픈 하우스'

광주시립도서관은 16일 초등학교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아메리칸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개최한다.

오픈하우스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무등도서관 1층 시청각실과 2층 아메리칸 코너에서 열리며, 초등학교 영어교사면 누구나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로버트 오그번 주한미국대사관 공보 부참사관이 '글로벌 시대 영어교사의 역할'을, 진 밴더우드 지역총괄담당관은 '영어교사와 학생을 위한 아메리칸 코너 자료'를 주제로 각각 특강을 실시한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영어교사들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영어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참가 신청은 무등도서관 아메리칸 코너(062-251-4465)로 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